

# 판타스틱 마니아 위한 한여름밤 축제

지난달 14일 서울과 부천에서 동시에 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됐다. 부천시 시민회관과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시네마는 지하철을 이용하면 1시간 내외 거리에 있었지만 각각 그곳에서 개막식이 진행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리얼판타스틱영화제의 사이에는 넘지 못할 벽이 존재했다. 상황이야 어쩔든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로 무더운 여름을 잊게 했다.

글 권경희 기자

**‘대** 중적이거나 혹은 마니아적이거나.’ 판타지 영화라는 공통점으로 이 두 가지 테마를 표방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리얼판타스틱영화제 2005가 지난달 14일 경기도 부천과 서울

에서 각각 개막돼 열흘간의 영화 잔치를 펼쳤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보다 대중적인 영화로, 리얼판타스틱영화제 2005는 비일상적인 소재를 실험적인 영상으로 담아낸 독특한 작품들로 관객의 선택을 기다렸다.

## 부천영화제 야외상영에 7,000여명 몰려

부천시민회관 대강당, 부천시청 대강당 등 여덟 곳에서 펼쳐진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는 한국·미국·일본·프랑스 등 32개국에서 출품한 172편이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패밀리 섹션’ 등으로 나뉘어 상영됐다. 최근 ‘녹색의자’를 개봉한 박철수 감독의 특별전과 ‘소나기’로 유명한 1970년대 대표적인 감독 고영남의 회고전도 함께 열렸다.

개막작은 러시아 티무어 베크맘베토프 감독의 ‘나이트 워치’와 멕시코 프랑스 합작영화 ‘천국의 전쟁’ 2편으로 상영됐다. ‘나이트 워치’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개봉 25일만

에 반지의 제왕 흥행기록을 깨 화제가 됐던 작품이며 ‘천국의 전쟁’은 2002년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을 수상한 알린 레이가디스의 신작이다.

폐막작도 2편으로 미국 크리스 켄티스의 ‘오픈 워터’와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을 연출한 유상욱 감독의 신작 ‘종려나무 숲’이 대미를 장식했다.

폐막식에는 홍건표 부천시장과 황원희 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폐막작 ‘종려나무 숲’의 출연진 김민중·김윤희 등 영화배우, 안병기 단편부문 심사위원장, 제라르 들롬 장편분야 심사위원, 박철수 감독 등 국내외 영화인, 마니아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영화제측은 경쟁 부문에 출품된 장·단편 영화 9편씩에서 우수작을 선정, 시상했다.

장편 분야에서 작품상에 ‘어둠의 시간’ (캐나다), 감독상에 ‘무의식’ (스페인), 남우주연상에 ‘라트리’ (태국), 여우주연상에 ‘요한나’ (헝가리)와 ‘어둠의 시간’ (캐나다), 심사위원 특별상에 ‘검은밤’ (벨기에), 푸르지오 관객상에 ‘하리움’ (인도)이 선정됐다. 단편에선 대상에 ‘라이언’ (캐나다), 단편 심사위원상에 ‘열개의 계단’ (아일랜드), 단편 관객상 ‘알리스와 나’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지난달 21일 오전 0시

Pifan



1. 페스티벌 레이디 장진영  
2. 개막작 천국의 전쟁 여주인공 '아나폴라 무슈카디즈'

3. 18일 부천시청 잔디광장  
4. 7080 그린콘서트



1. 개막식 관객전경  
2. 폐막식 전경  
3. 리얼판타스틱 스태프  
4. 김홍준 운영위원장  
5.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  
6. 이병헌과 김지운 감독  
7. 문소리  
8. 문성근

까지 3만여명의 관람객이 상영관을 찾았으며, 3차례의 야외 상영에는 수천명씩의 시민들이 즐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지난달 18일 밤 8시 부천시청사앞 잔디광장에서 무료 상영한 '오페라의 유령'에 7,000여명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다. 또 외국 영화인 133명을 포함해 총 1,660여명의 영화인이 행사에 참석했다. 영화제는 22일과 23일 '포스트 페스티벌'로 인기리에 상영됐던 작품들을 앙코르 상영한 뒤 1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 리얼판타스틱, 유료관객 9,444명 '순항'

지난해까지 부천 영화제를 이끌었다가 해임돼 파문을 일으킨 김홍준 운영위원장과 스태프가 주도한 리얼판타스틱 영화제는 총 2만6,456석에 유료 관객만 9,444명이 다녀가 작은 성공을 이뤘다. 해외 게스트 50여명이 영화제를 찾았으며, 370여명의 국내 게스트가 영화제에 얼굴을 비쳤다.

22개국 64작품이 영화제 기간 동안 선보였다. 이번 리얼판타스틱영화제에서 관객상은 캐나다의 마이클 도우즈 감독이 연출한 'X됐다, 피트통'이 선정됐고 단편 관객상인 후지필름 ETERNA(이터나)상에는 박수영, 박재영 감독이 공동 연출한 '핵분열 가족'이 선정됐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해외 언론인들의 한국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화제가 됐다.

한국영화계의 급성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팀이 리얼판타스틱영화제2005를 찾아 김홍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상영작 '알포인

트'의 공수창 감독을 만나 아시아와 한국의 공포영화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아시아영화전문지 '시네마지'의 프레데릭 앙부루아진 기자를 비롯한 프랑스 기자들은 리얼판타가 새롭게 서울에서 열리게 된 배경 및 의미와 더불어 리얼판타에서 상영되는 한국영화 감독들과의 인터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카이에 뒤 시네마'는 '귀여워'의 김수현 감독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1회 리얼판타스틱영화제는 작지만 알찬 성과와 관객의 호응을 얻으며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 이쉬운 반쪽 국제영화제

올해 판타스틱영화제는 서울과 부천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개막돼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지만 여러모로 아쉬운 행사였다.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총 예산 2억원, 총 상영작 61편에 불과한 리얼판타스틱영화제는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에 문제가 있었고, 예산 23억원에 172편의 영화를 선보인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는 국내 영화 인사들의 대거 보이콧으로 출범 9년 만에 반쪽짜리로 행사로 전락했다.

지난해 12월 임기 3년의 김홍준 부천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낮은 경제효과', '행사 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부천시로부터 해임을 통보 받은 후 시작된 판타스틱영화제의 분열은 해외에서 한국을 찾은 영화관계자, 판타스틱영화제를 즐기려는 국내 영화 팬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